

한국산 미기록속 *Baryconus*의 보고 (벌목: 검정알벌과)

최준열, Mikhail A. Kozlov¹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, ¹러시아과학원 동물연구소

검정알벌과(Scelionidae)는 벌목 납작먹좀벌상과(Platygastridae)에 속하는 분류군으로서 곤충이나 거미의 알에 기생하며, 후절 마디들의 길이 비, 측등판의 유무, 시맥의 형태, 홀눈의 위치 등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.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3아과에 13속 37종이 기록되어 있다. 농업과학기술원 표본실에 소장된 표본을 분류하여 새로 확인된 한국 미기록속 *Baryconus*에 속하는 1종을 한국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.

Baryconus bellatorius Kozlov & Kononova 투사검정알벌 (신칭)

미기록속 *Baryconus*는 이마에 난 침강부분이 뚜렷하고 주위가 carina로 완전히 둘러싸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. 두정은 다소 평탄하며, 옆에서 보면 뒷가장자리가 날카롭다. 암컷의 촉각곤봉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. 중흉순판의 중앙에 도랑이 발달했으며 후흉등판에 대개 두 개의 돌기가 있다. 연맥은 연문맥보다, 연문맥은 후연맥보다 짧으며, 연문맥은 후연맥에 수직이다.

B. bellatorius 암컷은 검고, 시맥과 2-12번째 촉각마디가 암갈색이다. 첫번째 촉각마디와 다리는 밝은 황색이다. 머리에 점각이 발달되었으며, 눈은 크고 매끈하다. 촉각곤봉은 6마디이다. Netrion이 있으며, skaphion은 없다. 연맥은 연문맥의 1/3 정도이다. 후절은 너비보다 길며, 1-2마디에 길이방향으로 도랑이 있다. 세번째 마디가 가장 길며, 1-2마디를 합한 정도이다.

*Baryconus bellatorius*가 추가됨에 따라 한국산 검정알벌과로 총 3아과에 14속 38종이 분포한다.